



## 광고는 '기술·기업·사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해 우리 국민이 좋아하고 주목했던 기업 마케팅 활동을 평가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공유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수단'이지만, 넓게는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경기 순환의 원동력'이자 '현 시대의 문화를 담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 (ICT)과 융합하면서 '기술과 기업, 사람'을 잇는 가교로서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은 1993년 제정된 이래, 우리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고양하고 제품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선정 과정에 있어, 국민들의 온라인 추천 및 광고회사 출품작을 대상으로 예심 및 100명의 국민심사단 현장투표심사, 그리고 소비자 관련 학회 및 단체 대표로 구성된 심사단의 최종 심사를 거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고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수상작들의 특징을 보면 <기업의 제품 혁신을 잘 표현한 콘텐츠>, <소방관, 택배기사 등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작은 영웅들을 응원하는 이야기>, <출산과 육아, 청년취업난, 환경 문제 등 사회현상을 반영해 국민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광고작품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활력을 더하고 대한민국 광고 선진화에 기여하는 광고'가 많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 등 광고 산업의 주체들과 상호 협력하며 합리적인 광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수고해주신 여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